

어진용(龍)의 장정 용인군

취재 : 박 삼 섭 기자

서울에서 약 40분대인 도시근교의 새로운 종합 휴양지

어진용이 살고 있다는 용인.

용(龍)을 상징적 용물로 여기고
있는 이방인에게 용인이라는 지명

부터가 매력적으로, 이 고장을 찾고
싶은 기행욕을 돋구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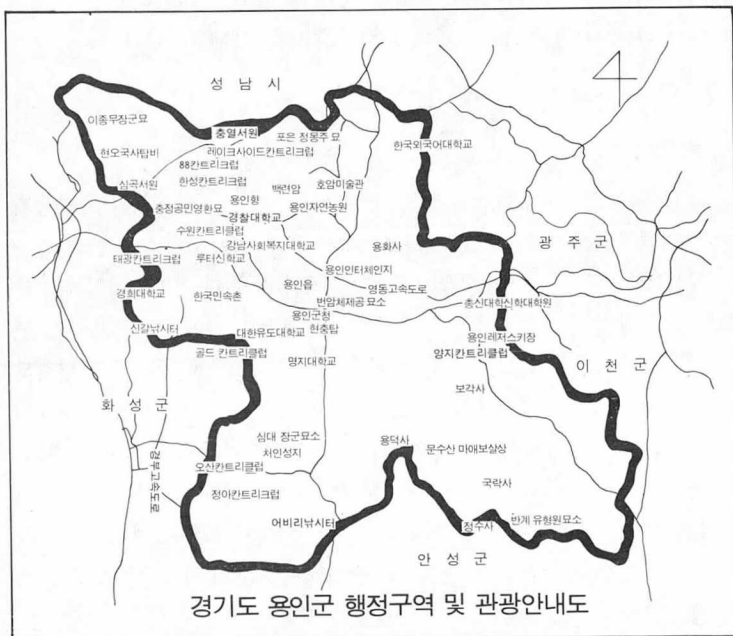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
다 부산과 수원을 연결하는 인터체
인지리를 돌아가면, 나지막한 구릉과
평야로 이어진 풍치가 엿보이는 용
인에 다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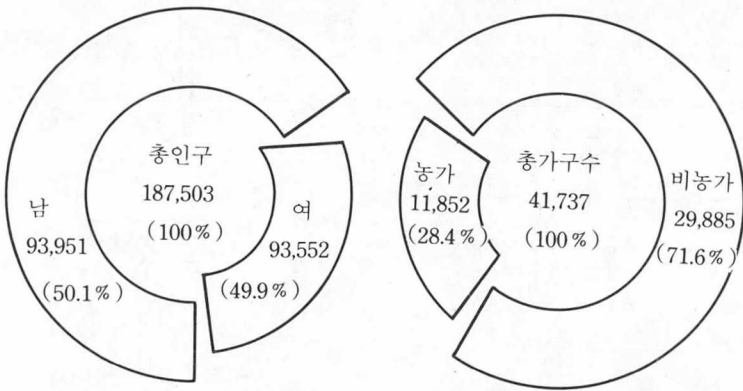
용인은 서울의 왕가 근처에 위치
해 있고, 아담한 산세의 풍수지리적
여건이 좋아 옛부터 포은 정몽주,
반계 유형원, 정암 조광조 등 충신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유서깊은 묘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 지금도 차를
타고 외곽지역을 돌아보면 산 중턱
마다 공원묘지 등 묘터가 간간히 눈
에 띈다.

서울에서 한시간 미만의 거리대
인 편리한 교통과 단조롭지 않은 산
세의 아담한 경치는 계속이어져, 현
재의 용인은 도심의 새로운 위락·
오락지역으로서도 한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속도로를 타고 약 40여분만 달
리면 일상생활에서 찌든 스트레스
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골프장·
낚시터, 그리고 자연농원·민속
촌·와우정사가 있기 때문이다.

용인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도시근교의 종
합 휴양지인 셈이다.





〈그림1〉 '89년도 용인군 인구 및 가구분포도

용구(龍駒)와 처인(處仁) 두현을 합친 것이 용인군의 탄생

용인군의 변천사는 역사의 흐름 속에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은데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백제때 위조현을 시작으로 고려초 용구로 개칭했다. 그후 고려시대 태조 6년에 들어서 수주의 처인부곡(處仁部曲)이 처인현(處仁縣)으로 승격했다. 태조 13년에 용구(龍駒)와 처인(處仁) 두현을 합쳐 용인현이라 개칭한 것이 용인군의 탄생이다.

1895년 충주부 용인이 되었다가 경기도로 이속된 일이 있다. 당시 행정구역 분할과 함께 양지군을 통합하고 죽산군 일부를 편입, 내서·외서·원삼면을 증설하기도 했다.

1979년 용인면이 용인읍으로 승격된 것은 이 지역의 성장 일변도를 볼 수 있다. 그후 수지면 하리와 인의리를 수원시로, 남사면 지목리 일

부를 평택군 진위면으로 각각 편입한 예도 있다. 또 '85년에는 기흥면이 기흥읍으로 승격됨으로써 이 지역 사람들은 외설에 의한 용인의 면모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용인군은 용인읍·기흥읍 등 2개읍과 포곡·모현·구성·수지·남사·이동·원삼·외사·내사면 등 9개면이 행정구역상으로 구성돼 있다.

'89년말 현재 4만1천7백37가구에 인구는 18만7천5백3명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요충지임을 상기하듯 용인군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살기좋은 문화속의 상징적 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일일생활권역으로 경제교류가 활발한 것이 인구증가의 한 예로 손꼽을 수 있다.

용인군의 가구 및 인구 분포현황

을 살펴보면 이 고장의 외형적 성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89년말 현재 용인군은 4만1천7백37가구에 인구는 18만7천5백3명으로서 가구당 인구는 4.5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의 3만9천9백98가구에 비해 4.6%, 인구는 17만9천8백42명에 비해 4.3%가 증가한 비율로서 해가 거듭될수록 가구 및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중 용인군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1만1천8백52가구, 총가구대비 28.4%로 약 3분의1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용인군의 총면적은 591.92km²로 군으로서 타지역에 못지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토지이용면적을 각 분야별로 보면 임야가 370.66km²로 전체면적의 62.6%에 해당된다. 또 경지면적은 154.00km²로 총면적의 26%에 해당된다. 이것을 세분하면 논이 93.69km²로서 총면적의 15.8%, 밭이 60.31km²로서 총면적의 10.2%에 해당된다. 기타 토지이용면적은 67.26km²로서 총면적의 11.4%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년말 현재 돼지사육 농가는 1천85호, 사육두수는 12만8천2백71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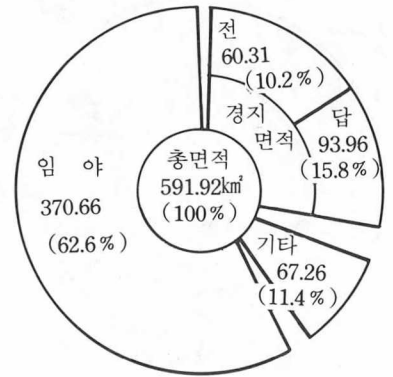
용인군은 타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양돈농가들의 질적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었지만, 자연농원 양돈장에서 많은 인

〈표1〉 연도별 용인군 가구 및 인구 추이

(단위 : 가구, 명)

연도	가 구 수		인 구 수		가구당인구
	계	전년대비 증가율 (%)	계	전년대비 증가율 (%)	
'85	35,323	10.3	153,859	3.2	4.4
'86	36,015	2.0	160,459	4.3	4.5
'87	38,111	5.8	169,960	5.9	4.5
'88	39,998	4.9	179,842	5.8	4.5
'89	41,737	4.6	187,503	4.3	4.5

* 자료 : 용인군청 기획실



〈표2〉 연도별 용인군 축종별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현황

(단위 : 호수, 두수)

연별	돼 지						한우(고기소포함)		젓 소		
	사육규모별 호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계	10마리이하	10~29	30~49	50~99	100마리이상					
'85	1,216	640	243	119	89	125	106,601	5,743	13,950	638	6,330
'86	1,106	479	226	117	103	181	125,282	5,165	14,941	622	6,381
'87	1,045	412	216	124	82	211	135,656	3,459	8,622	562	6,427
'88	1,268	406	279	124	147	312	185,740	2,606	6,596	484	6,708
'89	1,085	380	232	115	116	242	128,271	2,104	5,519	462	6,896

* 자료 : 용인군 식산과

〈표3〉 용인군 종돈장 현황

종돈장명	대표자	소재지	혈통등록두수			일 반		기간중	
			계			검정두수	종돈판매두수		
하나더	오병현	용인군 용인읍 마평리 417	25	18	7	25	1		
열림축산	정승이	용인군 외사면 박곡리 산88	62	55	7	62	8		
한국인공수정센터	김명진	용인군 내사면 송문리 560-2	18	-	18	8	-		
형제농장	홍재구	용인군 구성면 중리 171	40	31	9	40	47		

농림수산부 종돈업통계자료('89. 6)

력이 이 일대에 배출된 점을 감안한다면 양돈농가의 수준은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다고 봐야 한다. 이군 역시 전업화 추세에 따라 소규모농가는 점점 줄어들고 전업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지역 관계자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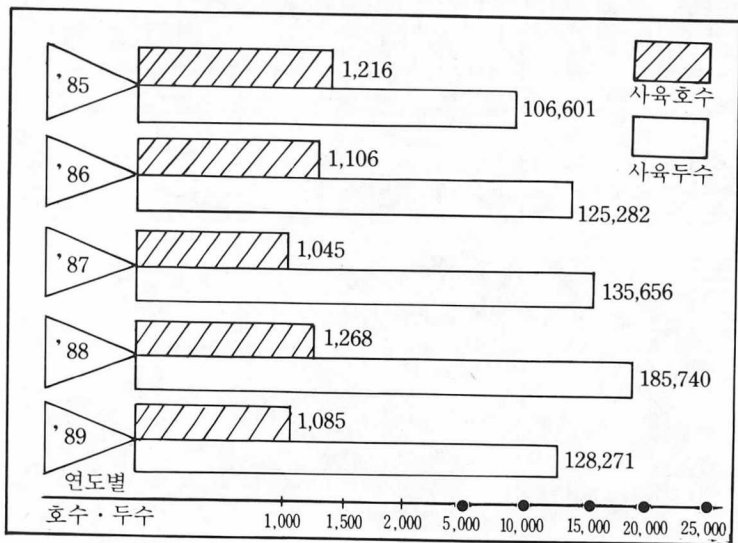
용인군의 돼지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를 보면 양돈업 규모화의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89년말 현재 사육농가는 1천85호, 사육두수는 12만8천2백71두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호수 및 두수는 '88년의 1천2백68호에 18만5천7백40두보다는 1

〈그림2〉 용인군 토지면적

백83호, 두수로는 5만7천4백79두가 줄어든 통계수치이다. 또 '87년의 1천45호보다는 46호가 늘어난 반면, 사육두수면에서는 13만5천6백56두보다 7천3백85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인군 타지역보다 사육두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종돈장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인접한 군에 여러 종돈장들이 많이 분포, 일반농가에서 쉽게 종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 포곡면 일대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예는 사육농가의 관리 잘못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종돈 유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용인군청 한 관계자는 「용인군 포곡면 일대의 돼지오제스키병 문제는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과거의 아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을 가져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림3〉 용인군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변동현황

특히, 시설의 자동화는 물론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기도 했다.

포곡면 종합폐수처리장은 이 일대 2백여 양돈농가 심적부담 덜어

전국의 양축농민중 특히 서울시 등 1천2백여만 도시민의 식수로 이

용되는 팔당수원지에 유입되는 남·북한강 중·상류지역 양축농민들은 축산폐수 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류하천에 인접한 양축농민들은 마스크를 통해 축산폐수 단속설만 나와도 철렁 가슴을 에워싼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산자들의 성화에 따라 용인축협이 3년전 마련해 운영중인 직업목장(경기도 시범초지 목장)과

포곡면에 완공된 종합폐수처리장은 양축농민들에게 귀감의 현상이 되고 있다.

용인축협은 4천평 규모의 종합폐수처리장 준공을 위해 환경처에서 2억9천만원, 군청에서 1억9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포곡면 신원리·유운리 일대 2백여 양돈인들은 앞으로 심적·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한 양돈농가에 따르면, 「관내를 가로 지르는 경안천이 팔당수원지로 흘러가는 점을 감안, 환경보전법의 1차적인 책임은 양축가 스스로 지키자는 일념속에 집집마다 하수관을 연결, 폐수를 한 곳에 모아 또다시 정화를 할 방침에 있어 앞으로 경안천은 더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용인군의 이와같은 사업은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되고, 전국적으로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하겠다. **■**

